

제1차 한-싱가포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 한-싱가포르 과학기술 협력 MOU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최초의 한-싱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및 양국 공동연구 추진 합의

【관련 국정과제】 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함께 8월 4일(화), “제1차 한-싱가포르 과학기술
공동위원회”(이하 ‘과기공동위’)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여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번에 최초로 개최한 과기공동위를 통해 지난
3월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한 「한-싱가포르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였다.

과기정통부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는 지난 3월 2일 싱가포르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싱가포르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SMR, 첨단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과기공동위를 통해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 협력의
토대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시하여, 양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교류하고
과학기술 중점 협력 분야를 논의하였다. 이번 과기공동위는 황성훈 과기
정통부 국제협력관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탄 카이신 혁신연구개발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았고, 양국 정부 및 연구재단 등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이번 과기공동위에서 양국은 과학기술 중점 협력 분야로 첨단 기술 분야인
생명공학 분야 및 반도체 분야를 선정하고, 2027년부터 3년간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양국은 공동연구과제 선정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의 협력체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공동위 개최와 공동연구 추진 등 양국 과학기술 협력
을 통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강점이 결합하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가 2027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10위를 기록하는 등 최고 수준의 대학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오제약 및 반도체 후공정 및 장비 부문에서 강점이 있다.
우리나라 또한 IMD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과학기술 인프라 부문 2위를
기록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시밀러 생산 역량과 HBM 등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황성훈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지난 3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
싱가포르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MoU)」에 이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체계를 확립하였다”며,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강점을 결합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기술 협력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기정통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책임자
		담당자